

제17강 십자군전쟁(1)

1. 동방의 요청과 서방의 응답

1. 동방의 요청

- (1) 만지케르트 전투(1071): 셀주크 튀르크의 침범으로 동로마제국은 위기에 봉착.
- (2) 요청: 동로마제국 황제가 교황청에 군사적 지원을 요청함.

2. 서방의 응답

- (1) 클레르몽 공의회(1095): 교황 우르바노스 II의 소집에 300여명의 권력자들이 참여.
- (2) 십자군 파병 결의: 1096년 8월 15일 출발하기로 결의함.

2. 원인

1. 교황권 강화: 신성로마제국에 의해 세력이 밀려 있던 교황은 교황권 강화 수단으로.
2. 종교적 원인: (1) 성지 순례의 중단 (2) 면죄부 획득
3. 경제적 원인: (1) 장자상속제 (2) 시장 개척과 부의 획득

3. 민중 십자군(1096)

- 은자 피에로의 선동에 의해 예정일보다 먼저 출발했으나(1096.4) 거의 전멸당함.

4. 제1차 십자군(1096-9)

1. 참전 리더들

- (1) 독일: 고드프루아(예루살렘 왕)와 보두앵 형제(에데사 백작)
- (2) 이탈리아: 보에몽(안디옥 공작)과 조카 탄크레드(갈릴리 공작, 안디옥 씨정)
- (3) 프랑스: 레몽(트리폴리 백작)

2. 동로마황제 알렉시오스 1세: 십자군을 요청했으면서도 십자군을 지원하지 않음.

3. 십자군 왕국 건설: 에데사(1097), 안디옥(1098), 예루살렘(1099), 트리폴리(1102)

4. 종교 기사단 결성: 템플(성전)기사단, 성요한기사단

5. 제2차 십자군의 실패와(1147-8) 예루살렘 상실(1187)

1. 이슬람 세력의 반격으로 인한 에데사 상실, 안디옥 위협 -> 제2차 십자군 결성, 침파.
2. 살라딘의 등장으로 인한 이슬람 세력의 강화.
3. 예루살렘 상실과 주민 구출을 위한 살라딘과 이밸린의 협상.

6. 생각해야 할 부분